

전주기상지청 '전주천 쓰담 달리기' 실시

- 세계기상의 날(3.23.), 지구와 건강을 지키는 탄소중립 실천운동 전개

전주기상지청은 세계기상의 날(3월 23일)을 맞이하여 3월 21일(목), 전주천에서 쓰레기 줍기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전주기상지청 직원 20여 명이 참석하여 가련교와 진덕교 사이 약 2.5km를 달리며 정화 활동을 함께하는 ‘쓰담 달리기*’ 형태로 진행되었다.

* 쓰담 달리기: 쓰레기 줍기와 조깅의 합성어(‘플로깅’의 순화어/국립국어원 2019.11.)

임덕빈 기상지청장은 “세계기상기구(WMO)가 정한 올해 기상의 날 주제는 ‘기후행동의 최전선에서’로 현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모두가 적극적 관심과 즉각적 행동이 필요하다.”라며, “전주기상지청은 지역 기후위기 극복과 자연재해 대응에 앞장서는 기관이 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붙임 전주기상지청 전주천 쓰담 달리기 활동 사진

담당 부서	전주기상지청 관측예보과	책임자	과 장	김형국 (063-249-3202)
		담당자	사무관	지명진 (063-249-3211)



| 전주기상지청 전주천 쓰담 달리기 단체사진(왼쪽에서 5번째 임덕빈 지청장) |



| 전주천 쓰담 달리기 활동 사진 |